



보도시점 2024. 2. 27.(화) 14:00
2. 28.(수) 조간

배포 2024. 2. 27.(화) 09:00

농식품부,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전방위적 대책 추진

- (과일) 비정형과 판매 촉진, 대체과일 공급 확대, '24년산 생육관리 만전
- (채소) 선제적 비축·방출, 유통업체 납품단가 지원, 생육관리 강화
- (축산) 자조금 활용 한우 최대 50%, 한돈 최대 40% 할인
- (할인지원) 대체과일 본격 출하 전까지 166억 원 투입, 최대 40% 할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기상 영향에 따른 과일·채소의 생산 감소 등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르게 낮추기 위해 품목별 상황에 맞춰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① (물가 동향) 농산물은 과일·시설채소 위주 강세, 축산물은 대체로 안정세

농산물의 경우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사과·배 등 과일류와 토마토·딸기 등 시설채소의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양파·마늘 등 노지채소는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 소매가격(2월 하순, 전년비) : (사과) 29,301원/10개(27.4%), (배) 40,455원/10개(39.1%), (토마토) 8,691원/kg(28.5%), (딸기) 1,706원/100g(3.6%), (배추) 3,738원/포기(18.4%), (무) 1,759원/개(△13.2%), (양파) 2,374원/kg(△6.9%), (깐마늘) 10,235원/kg(△22.4%)

축산물의 경우 소·돼지·닭고기는 안정적 수급 상황이 유지되고 있으며, 계란은 생산량 증가로 산지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소비자가격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소매가격(2월 하순, 전년비) : (소-등심) 9,401원/100g(0.7%), (돼지-삼겹) 2,348원/100g(△1.3%), (닭고기) 5,798원/kg(△2.3%), (계란) 6,787원/30구(8.4%)

② (과일) ▶ 햃과일 수확 전까지 사과·배 비정형과 공급 및 분산 출하, ▶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 ▶ '24년산 생육 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대형유통업체와 연계하여 사과·배 비정형과를 중심으로 판매를 촉진*하고, 농협 및 전국 APC 저장물량은 6월까지 분산 출하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 비정형과 판촉계획 : (하나로마트) 3.1~4.3, 사과 400톤, 배 100톤, (이마트) 3.1~3.3, 사과 150톤, (홈플러스) 3.1~3.6, 사과 50톤, 배 10톤, (롯데마트) 2.29~3.6, 사과 200톤

▶ 물량이 부족한 사과·배에 대한 수요를 분산하는 차원에서 소비자들이 대형유통업체에서 수입과일을 보다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대형유통업체의 수입과일 판매 수요 물량을 파악하여 할당관세 도입 물량을 충분히 배정*하고, 2월 23일자로 대형유통업체에도 할당관세 수입·판매 자격을 부여하여 수입과일 유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3~4월 대형마트 배정량 : 20천톤(바나나 13.7, 파인애플 3.6, 자몽 0.3, 망고 1.8, 아보카도 0.5)

▶ 아울러, 농식품부는 2024년산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과수 생육관리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먼저 사과배 과원에 대해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3월 중 지자체·농협·자조금단체 등을 통해 냉해예방약제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1~4월 중 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한 껍질제거와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집중 관리도 추진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과수 안정적 생산을 위한 대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사과배·복숭아 단감에 대해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민관 합동으로 구성(1월~)

③ (채소) ▶ 노지채소 선제적 비축방출, ▶ 시설채소 출하촉진 및 생육관리 강화

▶ 농식품부는 배추·무 저장출하기인 3~5월 수급 불안에 대비하여 2월 중 배추 2천 톤, 무 6천 톤을 추가 비축하고, 가격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최근 우천 등으로 산지 출하작업이 어려워 가격이 높은 대파는 대형유통업체 등에 공급하는 납품단가를 지원*하여 소비자 부담을 직접 낮출 계획이다.

* (기간) 2.26~3.15, (물량) 1,500톤, (지원단가) 500원/kg

▶ 최근 일조량 부족 등으로 출하가 지연되어 가격이 높은 오이·애호박·청양고추 등 시설채소에 대하여 전국 주요 농협 하나로마트에 출하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여 출하를 촉진하고 소비자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딸기는 비정형과 할인 특판 행사를 추진하여 수요를 분산하고, 3월 이후 출하가 시작되는 참외, 수박 등 대체 과일의 생산 안정을 위해 생육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 (기간) 2.26~3.8, (물량) 75톤, (지원단가) 1,300원/kg

④ (축산) ▶ 한우는 3월 중 2차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 ▶ 한돈은 3월까지 20~40% 할인, ▶ 계란 가격 안정 대책 추진

▶ 농식품부는 설 명절(1.29~2.9)에 이어 3월에도 전국 단위 대규모 한우 할인판매 행사(일명, 소(牛)프라이즈)를 실시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돕기 위해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하여 추진한다. 등심, 국거리·불고기류 등을 평시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 또한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돼지고기 도매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돈 농가를 돕기 위해 설 명절 전부터 추진한 할인행사를 3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전국 대형·중소형 마트 등에서 국내산 돼지고기를 설 명절 전과 동일하게 약 20~4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 계란의 경우 2월 일일 생산량이 4,621만 개로 전년 대비 2.8%, 평년 대비 6.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산지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지가격 하락분이 소비자가격에 조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2월 22일부터 대형마트·농협 등과 협조하여 자체 할인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농협을 통해 유통업체 납품단가를 인하(500원/30구)하여 소비자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계란 산지가격 : (1.하) 5,101원/30구 → (2.중) 4,843 → (2.하) 4,689(전월비 △8.1%)

⑤ (할인 지원) 4월까지 166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40% 할인

▶ 농식품부는 참외 등 대체과일이 본격 출하되는 5월 전까지 16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과·배를 중심으로 최대 40%의 할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할인 정보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작하여 SNS 채널 등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 정부 20%, 업체 자체 20%, (2.22.~2.28. 품목) 사과·배·대파·토마토·시금치·감귤 등 6종
(2.29.~3.6. 품목) 사과·배·대파·토마토·시금치·애호박·청양고추 등 7종

** 2~3월 수산물을 포함한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약 300억 원 투입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기상 영향으로 생산이 감소한 과일·시설채소 영향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높은 상황이지만, 노지채소와 축산물은 비교적 수급여건이 안정적인 상황이다.”라며,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빠른 시일 내에 낮추기 위해 국내·외 공급 확대, 할인지원 지속, 생육관리 강화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	책임자	과 장	신우식 (044-201-2231)
		담당자	사무관	남기현 (044-201-2234)



농축산물 가격 안정방안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1 과일

☑️ 햇과일 수확 전까지 비정형과(못난이 과일) 공급 및 분산 출하

- 비정형과 판촉계획 : (하나로마트) 3.1.~4.3., 사과 400톤, 배 100톤 (이마트) 3.1.~3.3., 사과 150톤, (홈플러스) 3.1.~3.6., 사과 50톤, 배 10톤 (롯데마트) 2.29.~3.6., 사과 200톤

☑️ 수입과일 유통 활성화를 통한 수요 분산

- 대형유통업체에 수입과일 할당관세 수입·판매자격 부여 및 희망물량 배정

☑️ '24년산 과일 생육관리 강화

-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냉해 예방시설 지원, 냉해예방약제 공급, 화상병 궤양 제거 등 선제적 대책 추진



02 채소

☑️ 노지채소의 선제적 비축 방출

- 배추·무는 3~5월 대비 각각 2천 톤, 6천 톤 추가 비축
대파는 1.5천 톤 납품단가 지원(2.26.~3.15., 500원/kg)

☑️ 시설채소(오이·애호박 등) 출하촉진 지원 및 생육관리 강화

- (기간) 2.26.~3.8., (물량) 75톤, (지원단가) 1,300원/kg



03 축산물

한우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 최대 50% 할인(3월 중)」

- 한우 등심, 국거리·불고기류 등 최대 50% 할인

한돈 설 명절 전부터 추진한 할인행사를 연장하여 최대 40% 할인(2.12.~3.31.)

- 국내산 돼지고기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등 20~40% 할인

04 할인지원

☑️ 4월까지 166억 원을 투입하여 최대 40% 할인

- 할인품목 : (2.22.~2.28.) 사과·배·대파·토마토·시금치·감귤 등 6종
(2.29.~3.6.) 사과·배·대파·토마토·시금치·애호박·청양고추 등 7종